

# “감귤문제 소극 대처”... 행정 의지부족 ‘도마 위’

### 김경미 의원, 해마다 줄어드는 감귤정책예산 지적 강성민 의원 “제주시 신청사 설립기금 조성 필요”

제주감귤이 가격 하락 및 소비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제주도정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품질 향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감귤정책 담당 부서인 감귤진흥과의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지난 20일 속개한 제주도의회 제 37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

주당, 비례대표)은 감귤정책에 대한 제주도정의 의지 부족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우선 감귤 가격 하락에 대한 제주도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가격 하락 요인으로 품질 저하와 전반적인 과일에 대한 소비 수요 감소를 꼽으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감귤 품질 향상을 들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하

락하고 있는 감귤가격과 감귤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소관 부서인 감귤진흥과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귤가격 하락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 그에 따른 정책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감귤진흥과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두고 “말과 예산이 다른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1차산업이 제주의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예산과 대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적극

공감한다”면서 “기금이나 내년 1회 추경을 통해 적극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은 제주시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청사 건립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조금씩 적립해야 나중에 청사 지을때 부담이 없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깊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 문 대통령, 中·日 정상과 잇따라 양자회담

### 교류 협력·한반도 현안 논의

문 대통령은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 두 정상과 양자 정상회담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3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 대해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댄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베 총리와 24

일 오후 청두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청와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15개월 만에 개최되는 양자 정상회담으로,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24일 오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된다.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20년간 3국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또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동북아와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3국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청와대·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제2공항 갈등 해소특위 국토부에 활동 협조 요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이하 특위)는 지난 20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특위 활동 협조를 요청했다.

특위는 이날 특위활동이 완료될 때 까지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보류와 특위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사회의 내 갈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때 정보 제공, 토론 참여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 특위 활동에 따라 최종 도출된 제2공항 건설 관련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오은지기자



탐조행사 나선 환경동아리 학생들 21일 제주도내 최대 철새도래지인 하도를 찾은 새하강도학교 환경동아리 학생들이 망원경을 이용해 철새들의 생태를 살펴보고 있다.

##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축소 조정

### 당초 와흘리 30만㎡서 ‘기존사업 부지’로 변경 JDC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쓰레기 문제 고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이 축소됐다.

JDC는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을 ‘신규단지 개발방식’이 아닌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등 ‘기존사업 부지’에서 우선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은 지난 6월 13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날 회의에서 정민구(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 의원은 “JDC

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이 향상 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자립형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를 계획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제주도 일원 30만㎡에 1단계 사업으로 총 2537억원을 투자, 거주생활·단지관리 기능을 갖춘 거점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도시를 새로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신청을 해놓았다. 쓰레기와

하수, 자동차가 넘치는데도 JDC는 9만평 땅에 도시를 하나 만들어 분양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조천읍 와흘리 쪽에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화해서 물어보니 일부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다고 들었다”고 대답한 바 있다.

JDC는 “제주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 및 쓰레기 처리 부담 가중, 상·하수도시설의 공급 부족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기존사업 부지에서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됐다”며 사실상 와흘리에서의 신규단지 개발 계획을 접었다는 뜻을 밝혔다.

송은범기자

## 2020년 공영주차장 조성·유료화 적극 추진

### 제주시, 주차장복층화 병행

제주시는 부지 매입, 주차장 복층화, 공한지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한 주차시설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68억5500만원을 투입해 주차대수 1187면을 확보했으며 주차장 부지도 6필지(5762.2㎡)를 매입, 주차난심화지역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함을 물론 앞으로 주차수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2020년에는 공영(공한지)주차장 22개소·복층화 사업 7개소를 조성해

약 1412면을 확보하고 기존 무료주차장 10개소를 유료로 전환하는 등 총 사업비 458억7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주차난이 심한 노형동 2612-2번지(구 제주물류 서측)에 주차장 복층화(164면·49억원) 공사를 내년 8월에 준공해 노형동 일원 교통체증 및 주차난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생활형SOC 사업 등을 활용해 복층화 사업은 물론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확대 시행해 주차회전을 제고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제주감귤 소비 촉진’ 민주당, 캠페인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감귤농가를 돕기 위해 ‘제주감귤 소비촉진 캠페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해찬 당대표 주재로 열린 제32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제주감귤 소비촉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국회의원의(서귀포시)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 의원은 이날 직접 공수한 제주감귤을 이해찬 대표에게 전달하는 한편 당 지도부·기자 등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주며 제주감귤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부미현기자

## 시장격리 2L·극소과 감귤 출하 강력단속

### 서귀포시, 위반시 과태료 등 처분

하락세가 이어지는 노지감귤 가격 회복을 위해 크기가 가장 큰 ‘2L’ 감귤의 시장격리와 횡경 45mm 이상 49mm 미만 소과의 자가능가 수매격리사업이 추진되면서 이들 소과와 대과 감귤 출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서귀포시는 20일부터 제주도와 행정시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소비지 도매시장에 대한 단속과 해당 크기의 감귤을 출하하는 선과장과 농가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소과 감귤을 출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2L 감귤을 출하하

는 선과장이나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패널티 부과기준을 적용해 앞으로 각종 보조금 사업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성명·연령·정당·직업·경력 순

▶서귀포시 ▶박예수 ▶63 ▶국민세정당 ▶정당인 ▶전 민주당평화당제주도당 노인위원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연대총회 부총회장

# 제주4·3사건 관련 유족증 발급 및 복지 지원 안내

제주4·3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실질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보조비 신청, 희생자 및 유족증 발급 등 복지지원 안내사항입니다. 2020년에는 1945년생도 만 75세가 되어 생활보조비 신규지원이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1. 복지 내용

- **생존자 의료비** : 생존희생자로 결정된 자
  - 의료비(도내 지정병원, 약품대 및 입원비 본인 부담 100% 지원)
  - 장제비(300만원 지급)
- **생활보조비** : 생존희생자 및 희생자 배우자,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
  - 생존희생자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 30만원, 유족 10만원 매월 지원
  - ※ 신청방법 : 도내 거주자(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희생자 본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
- **유족 진료비** : 1954년 유족까지 지원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비급여 본인 부담 단, 본인부담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며느리 진료비** : 1954년생 며느리까지 지원(자부만 해당됨)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비급여 본인 부담 단, 본인부담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2.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

- **4·3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 안내**
  - 지원대상 : 제주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생존희생자 및 유족
  - 신청접수 : '19. 4. 1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도내 거주자(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희생자 본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 국외거주자(제주도 4·3지원과)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위임장,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2매(3×4)
  - ※ 신청서 : 읍면동 및 도청 홈페이지 “유족증” 클릭

### 3. 기타 복지혜택

- **항공할인** : 제주항공(생존희생자 50%, 유족 30%, 제주기점에 한함)
- **주차료 감면(생존희생자 및 유족)** : 50%
  - 도내 공영주차장,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2부두), 제주항공제어객터미널(7부두)
  - 절물자연휴양림(생존희생자 면제), 한라산국립공원(면제), 한라수목원
- **관람료 무료(생존희생자 및 유족)** :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관람료 등
- **화장장 사용자 무료(희생자)** : 양지공원 등에 화장 및 안장비 면제

문의처

- 제주도청 4·3 지원과 064)710-8434~6
- 생활보조비 : 제주자치도 읍·면·동사무소(생활보조비 담당)
- 생존희생자, 유족진료비, 며느리진료비 : 제주4·3평화재단 064)723-4309, 4340